

시간동기형 Viterbi 알고리즘과 HMM에 기반한 음성의 자동 세그멘테이션

°오세진*, 황철준**, 김범국**, 정호열*, 정현열*

*영남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대구과학대학 정보전자통신계열
osj@speech.yeungnam.ac.kr, (hcj, kbk)@mail.taegeu-c.ac.kr, (hoyoul, hychung)@yu.ac.kr

Auto-Segmentation of Unsegmented Speech based on HMM and Time-Synchronous Viterbi Algorithm

Se-Jin Oh, Cheol-Jun Hwang**, Bum-Koog Kim**, Ho-Youl Jung*, Hyun-Yeol Chung*

*School of Electrical Eng., & Computer Science, Yeungnam University
**Informational Electronics & Communication Div., Taegeu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음성인식에 있어서 음향모델의 고정도화를 위해 통계적 방법인 HMM과 시간 동기형 Viterb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세그멘트되지 않은 음성의 자동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세그멘트된 음성에 대해 연속분포형 HMM 기본모델을 작성한 후 이를 표준패턴으로 사용하고, 세그멘트되지 않은 입력음성의 특징 파라미터에 대해 시간동기형 Viterbi 알고리즘의 누적확률이 프레임마다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경계로 설정하고, 앞에서 구한 최적 경계 정보와 언어학적 지식인 발음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음성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HTK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구한 음성의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연속분포형 HMM 기본모델과 HTK의 CHMM 기본모델을 각각 작성한 후, 국어공학센터(KLE) 단어 데이터에 대해 단어인식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KLE 452 남성과 여성에 대해, 본 연구실 인식 시스템은 화자독립 단어인식률 89.4%, 85.1%, HTK의 화자독립 단어인식률 85.1%, 81.9%를 각각 얻었다.

1. 서 론

대어휘 연속음성인식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음향모델과 연속음성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모델의 개발, 그리고 운율정보의 사용과 잡음처리 등이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음향모델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음성데이터를 음소와 같이 기본단위로 분할하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 통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

수집한 음성의 세그멘테이션 작업은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수작업에 의해 음성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음성학적 지식이 풍부한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스펙트로그램 판독 및 청취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지루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음성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미리 정해 두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음성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2]. 따라서 서로 다른 전문 음성학자들이 동일한 음성을 분할할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음성을 분할하더라도 추출된 음성 경계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한 지루한 작업이 계속됨에 따른 판단의 오류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음성의 세그멘테이션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지루한 작업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접근방법으로 소량의 세그멘트된 음성에 대해 연속분포형 HMM 기본모델을 작성한 후 이를 표준패턴으로 사용하고, 세그멘트되지 않은 입력음성의 특징 파라미터에 대해 시

간동기형 Viterbi 알고리즘[7]의 누적확률이 프레임마다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경계로 설정하고, 앞에서 구한 최적 경계 정보와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한 음소표기식의 발음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음성의 자동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세그멘트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445 단어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한 CHMM 기본모델과 발음사전을 이용하여, 세그먼트 되지 않은 국어공학센터(KLE)의 452 단어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동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세그먼트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어음성인식 실험을 수행한 후,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음성 데이터베이스

2.1 음성 데이터 및 전처리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45 단어 데이터베이스 중 14명과 국어공학센터의 남자와 여자의 452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음성 데이터는 모두 방음부스에 녹음되었으며, 16khz로 샘플링하고 16bit로 양자화 되었다. 본 연구실의 전처리 과정에서는 16ms 해밍 윈도우를 끊하여 5ms 단위로 중첩하면서 14차의 LPC 분석을 통하여 10차의 멜-캡스토럼 계수를 추출하고, 1차 차분 성분인 10차의 회귀계수를 음성특징 파라미터로 사용한다[5]. 또한 HTK[6]를 이용할 경우에는 25ms 해밍 윈도우를 끊하여 10ms 단위로 중첩하면서 에너지 성분을 제외한 12차의 MFCC와 1차 차분 성분인 13차의 MFCC, 2차 차분 성분인 13차의 MFCC로서 총 38차원의 특징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사용된 특징 파라미터의 분석조건을 표 2에 나타내었다.

